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

대처행동에 대한 척도개발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오 정 훈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
대처행동에 대한 척도개발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오 정 훈

인 준 서

오정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이 느끼는 성피해 불안, 제약행동, 대처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에 있다. 성피해 불안, 제약행동,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을 위해 내용적으로 타당한 문항을 구성하고, 개발한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과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해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115명을 대상으로 성피해 불안을 느끼는 상황 및 대상,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제약행동, 성피해에 대한 가능한 대처행동을 묻는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4점 척도의 문항화 작업을 실시하여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31개의 문항,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 척도 17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척도 내용에 대해 구성한 문항으로 336명의 여성에서 2차 설문을 실시하여 결측값이 있는 17개 자료를 제외한 319개 자료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입증 을 위하여 BAI(Beck's Anxiety Index)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916이었으며 BAI와는 .107의 무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907로 나타났으며 BAI와는 -.077의 무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는 신뢰도에 있어서 높은 편이고 BAI와의 상관도 무의미한 상관을 보여 일반적인 불안증상에 대해서 독립적인 요인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항의 수집 과정에 있어서도 이론적 배경 외에 실제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 및 행동을 질문지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피해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겪게 되는 중요한 정서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한 일이라 판단된다. 추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집단에서 실시하여 보완을 거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임상 집단 및 비임상 집단에서 여성의 성피해불안 정도를 평가하고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성의 개념	5
2. 성피해의 개념	6
3. 성피해의 현황과 그 후유증	8
1) 성피해의 현황	8
2) 성피해의 후유증	9
4.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과 성피해 대처행동	12
1) 성피해 불안에 관한 연구	12
2) 성피해 불안의 개념	15
3) 제약 행동의 개념	17
4) 대처행동의 개념	17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20
2. 측정도구	20
1)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	20
2) Beck의 불안척도(BAI : Beck's Anxiety Index)	20

3. 조사절차 _____	21
1) focus group 조사 _____	21
2) 예비설문조사 _____	22
3) 최종설문조사 _____	22
4. 자료분석 _____	23
IV. 연구 결과 _____	24
1 문항 및 하위요인 결정 _____	24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_____	28
2)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_____	31
2 신뢰도결과 및 타당도 검증 _____	34
1)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_____	34
2) 내적 합치도 _____	35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 _____	35
(2)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 _____	37
V. 논의 및 제언 _____	41
1. 논의 _____	41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_____	4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표 1 >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14
< 표 2 > 상황통제요인과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15
< 표 3 > 각 요인별 문항 내용	25
< 표 4 > KMO와 Bartlett의 검정	28
< 표 5 >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요인별 부하량	30
< 표 6 >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별 부하량	33
< 표 7 > 각 하위 요인별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34
< 표 8 > 각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의 내적 합치도	36
< 표 9 >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37
< 표 10 > 각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의 내적 합치도	38
< 표 11 >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38

< 표 12 > BAI와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 _____ 39

< 표 13 > 각 변인별 상관계수 _____ 40

그림 목 차

< 그림 1 >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__ 29

< 그림 2 >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_____ 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활동은 성별을 가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상의 활동으로, 모든 인간은 성의 범주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Conelis, 1982; 한은옥, 문인옥, 2004, 재인용). 건강한 성에는 사랑과 친밀성이 전제되며, 사람은 공포와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여,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타인과 진실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성적 사랑은 자아의식을 확대하고 자기확신과 자신감을 경험하게 하고 극치감을 통해 분리감을 극복하게 해준다(민성길, 1999).

반면, 자기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행동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성폭력을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것은 몇몇 소수나, 특수한 상황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공공장소나 직장과 같은 일상적 상황에서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성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가까운 실례로, 출퇴근 등으로 인해 붐비는 시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성추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봄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오르지 못하고 몇 차례 떠나보낸다거나 다른 경로, 또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Ferraro(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게 있어 성폭력은 가장 불쾌한 것으로 작용하며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Gordon과 Riger는 여성의 강간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필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989). 또한 범죄(성폭력을 포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일상 생활을 바꾼다고 해도 그러한 제약 행동 자체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다(Liska, Sanchirico & Reed, 1988). 따라서 범죄에 대한 불안 및 제약행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심리치료 및 성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의 습득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Hollander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의 여권확장론자의 자기방어 수업에서 (feminist self-defense classes) 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방어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self-defense 수업을 받은 직후, 여성들은 두려움이 더 적어지고,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보고했다 (Cohn, Kidder, & Harvey, 1978; McCaughey, 1997; McDaniel, 1993; Ozer & Bandura, 1990; Weitlauf, Smith, & Cervone, 2000; Hollander, 2004). 이는 성폭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피해를 당한 경험이 전무한 여성 모두에게 일어났다. (Ozer & Bandura, 1990; Hollander, 2004) 이 연구에 따르면 대처행동에 대한 훈련은 불안 및 불안으로 인한 제약행동의 경감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사전 사후 검증에 위한 도구로 성 경험 질문지 (Sexual Experience Survey: Koss, Gilycz & Wisniewski, 1987), 자기 방어 자기효능감 척도(Self-Defense Self Efficacy; Weitlauf과 그 외, 2000),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 수용척도(Rape Myths

Acceptance Scale; Payne, Lonseay, & Fitzgerald, 1999; Hollander, 2004, 재인용), 신체적 자기효능감 척도(Physical Self-Efficacy Scale; Ryckman, Robbins, Thornton, & Cantrell, 198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관념 척도(Liberal Feminism Ideology Scale; Morgan, 1996)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불안수준 및 제약행동, 대처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실험 참가자의 단편적인 진술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피해나 그 후유증 및 치료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피해 불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범죄에의 불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성폭력의 두려움의 정도는 성폭력의 실태와는 별도로 한 사회의 성폭력의 심각성을 재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성폭력 발생률이 낮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크다면 성폭력의 문제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객관적인 발생률보다는 주관적인 두려움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자체라기보다 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최인섭, 김성언, 1998).

따라서 심리치료 상황에서 성피해 불안, 제약행동, 대처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재 여성의 성피해 불안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나 치료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성피해 불안, 제약행동, 대처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심리치료현장에서 여성의 성피해 불안을 평가하고 치료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대처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여성의 성피해 불안, 제약 행동, 대처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성피해 불안과 제약행동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여성 및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에 어려움 가지고 있는 여성을 구분하고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일반인의 상식적인 개념을 파악하여 문항을 제작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를 개발한다.

성피해 불안척도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피해 불안증상 및 제약행동을 타당하게 평가하며 이를 겪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가?

연구문제 2. 여성의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를 개발한다

성피해 대처행동척도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을 타당하게 평가하며 이를 경험하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의 개념

성(性)과 관련해서 sex(자연적 성), gender(사회적 성), sexuality(문화적 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sex는 남녀의 생물학적 혹은 해부학적 차이와 '성관계'로 불리는 친밀한 성행위와 성적 쾌락을 지칭하고, gender는 남녀간의 사회문화적 구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남자됨과 여자됨이 각기 의미하는 측면들, sex에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되는 속성과 역할 및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며, sexuality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한 구성주의적 개념으로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방향성을 결정짓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사회적 삶의 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적 의미를 갖는 모든 태도, 가치, 믿음 행동을 지칭한다. 즉 자연적 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식기능을 함축하는 용어이며, 사회적 성은 남녀의 성차에 의한 사회적 역할 구분을 나타내고, 문화적 성은 인간의 성행동 이외에 성에 대하여 갖는 태도, 감정, 가치관 등 생물학적 성의 문화적 표현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처럼 우리말에서 성(性)은 성별 구분을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와 성행위, 성관계를 의미하는 특정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영어권에서 말하는 sexuality는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로, 성 관계 또는 성교를 의미하는 sex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되며 문맥을 통해 이해된다. 결국, 성(性)은 신체구조, 사회 문화적, 심리적, 윤리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남녀가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성과 관련된 이성적, 감성적 의식, 행동욕망 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심영희, 1998; 이주용, 2004, 재인용). 이 때문에, 성은 가장 사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공적이며, 가장 여리고 예민하면서도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성(sexuality)은 신체구조와 심리구조, 사회적 규범과 특정 사회 조직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인 현상학적인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Hearn & Parkin, 1987; 이주용, 2004, 재인용).

2. 성피해의 개념

성추행은 직접적인 강간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심을 지칭하며 예컨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치근대는 행위나 성적인 농담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성적인 야유를 하거나 빈정거리는 행위, 성적인 몸짓을 해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뻔히 쳐다보는 행위, 성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김상원, 1998).

성폭력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폭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또 각 문화마다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강간이나 학대로 판단되는 행동이 어떤 문화에서는 때로 암묵적으로 인정되거나 무시되는 일도 있다(Koss, 1994; Courtois, 1979; 송진경, 2003, 재인용). 우리나라의 법률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현행 형법상, 성폭력 특별법상, 청소년성보호법상 규정된 성범죄 중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위력, 위계에 의한 경우 등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를 ‘성폭력범죄’라 할 수 있다(이동임, 2007). 외국의 경우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상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 강압 및 상해에 대한 위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나, 피해자가 정

신 질환이나 정신지체, 약물중독 등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된다(Koss, 1994).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성폭력은 강간 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길거리나 직장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기노출은 물론 어린이 성추행, 음란전화 등 성적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따라서 음담패설이나 강제로 껴안는 것, 키스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이것으로 인해 받는 행동 제약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임상적 관점에서 Koss와 Harvery는 강간을 성적 피해의 최종지점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강간보다는 덜 극단적이나 동시에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도 임상적으로 강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강간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이든 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박 또는 완력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Koss & Harvery, 1991; 이원숙, 1998, 재인용). 한국성폭력상담소(2001)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남녀간의 성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으로 불평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인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성폭력에 포함하게 된다(현혜순, 2000, 이주용, 2004, 재인용).

성폭력에 대한 개념인지의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원치 않는 성적경험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이나 문제제기의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함과 동시에 피해의 내용을 고스란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김으로써 피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남숙, 2002; 이주용, 2004, 재인용).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 강간으로 한정된 용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성피해란 성희롱, 성추행, 성학대, 성폭행, 강간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원치 않는 성적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성피해는 심리사회적인 주제이며 피해자에게는 외상적인 경험으로 신체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심한 손상을 주는 일이다. 성피해는 기존 형법에서 강간이나 성추행을 의미하며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서는 성폭력으로 표현된다(임신영, 1999; 최숙희, 2004,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및 성추행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성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3. 성피해의 현황과 그 후유증

1) 성피해의 현황

우리나라 성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국제형사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율은 미국, 스웨덴에 이어 3위였고, 1997년 말 인터폴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연간 7,000건으로 세계 2위라고 밝혔다(김선아, 2003).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2006년 상담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이 927건(4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835건(36%), 성희롱 248건(10.7%), 스토킹 113건(4.9%), 강간미수 87건(3.8%), 통신매체이용 음란 51건(2.2%), 카메라이용촬영 35건(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피해 상담 접수사례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842건에서,

1997년 1,647건, 2002년에 2,961건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2005년에 2,15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2,317건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임혜영 외 7인(2006)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울 북동지역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에 129명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7세 미만의 유아가 5명(3.9%), 7세부터 13세 이하의 소아가 23명(17.8%) 14세부터 19세 까지의 청소년이 29명(22.5%), 20세 이상의 성인이 72명(55.8%)로 드러났다.

또한 성피해는 공공장소나 직장과 같은 일상적 생활공간 가운데서도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지하철 수사대가 적발한 지하철 범죄유형에서 여성 성추행이 472건(4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폭력(24.4%), 절도(소매치기, 들치기, 19.5%) 순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6명의 피해자 중 20대가 40명(71.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명(10.7%), 40대 7명(12.5%)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제 벌어진 성추행은 적발건수의 '최소 50배'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황지태, 2003). 따라서 실제 여성승객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 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많은 여성들이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가해남성의 폭언과 폭력, 주변 이들의 무관심이나 가해자에 대한 옹호를 경험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역시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미국의 경우 42%에서 88%에 이르는 직장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Ragins & Scandura, 1996).

2) 성피해의 후유증

성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우울, 분노, 성적 자존감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존감의 저하를 나타낸다(Shapiro, 1997). 성피해는 이를 경험한 여성

들에게 있어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 · 단기적으로 후유증을 가지게 한다는 데에 문제시된다.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2차 피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생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피해 여성에 대해 수사와 재판의 담당자들이 생존자에게 반복질문을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거나, 생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질문을 하게 되면, 생존자는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성폭력 생존자가 수치심으로 민감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할 때, 수사담당자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흥미 있어 하는 태도를 보이면 생존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심하게 손상당하였다고 느끼며, 이 과정에서 자책감, 자신감 결여, 자기파괴, 불안감, 무력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허복옥, 2006).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은 정서영역, 인지지각영역, 신체영역, 대인관계영역, 행동영역, 성적영역의 6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서영역에서 피해자들은 불안, 강박 증상, 무기력, 우울증상, 분노감정, 적개심, 양가감정, 수치심, 죄책감, 낮은 자기존중감을 보이며, 인지지각영역에서는 해리, 부정, 감정억압, 인지왜곡, 환각 현상을 나타내며, 신체영역에서는 심인성 통증과 수면장애 그리고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보인다. 대인관계영역에서는 거부공포와 친밀공포를 나타내며, 과잉책임감, 통제행동, 불명확한 자기경계를 보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행동

을 보인다. 행동영역에서는 자해행동, 공격행동, 섭식장애, 알콜 및 약물남용을 보이며, 성적 영역에서는 왜곡된 성적체감과 성기능장애를 보이고 섹스와 애정을 혼동하며 때로는 과잉 성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정규, 1998).

성피해를 당한 대학생이나 직장여성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저하, 우울증, 불안감의 증가 등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으며(정의남, 2002), 성피해 이후의 성적 부적응은 소아 · 청소년피해자와 성인피해자의 경우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아 · 청소년의 경우 정상인들고 더 많거나 혼란스러운 성 활동을 보이는 반면 성인 피해자는 성기능장애, 성만족도의 저하, 성에 대한 피해망상적 사고 등 성기능과 성활동의 감소를 주로 보인다(Burgess & Holstrom, 1995; Sogori, 1982; Willy & Bernadine, 2000; Glasser & Frosch, 1988; 권희경 · 장재홍, 2003,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순결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성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성피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한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채규만, 1999). 또한 성피해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심과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비하하는 자책감을 갖기도 한다(Janoff-Bulman, 1979). 성장기에 성폭력을 당한 후 불안 및 분노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성장 후에 이러한 감정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우울로 내면화되어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을 느끼고, 자기비난의 사고가 만성화 될 수 있다. 특히 자기비난은 주로 자신이 항거하지 못했거나 순응했다는 생각들과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가치

감을 상실하였다는 느낌들이며, 이로 인해 수치심과 죄책감이 많아지게 된다(Finekelhor & Brown, 1985). 이러한 자기비난 사고는 ‘여성은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치롭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이러한 것은 ‘해를 입은 물건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으로 설명된다. 해를 입은 물건 증후군이란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무가치해졌을 뿐만 아니라 존중받을만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Sgroi, 1982; 김옥희, 2006. 재인용).

4.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과 성피해 대처행동

1) 성피해 불안에 관한 연구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55%에 이르는 미국 여성이 범죄와 희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밤에 혼자서 집주변을 걷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S Bureau of Justice Statistic, 1996; Kristen Day, 2001, 재인용). Ferraro는 성폭력과 다른 9가지 범죄에 대해 범죄에의 두려움, 범죄 위험, 그에 따른 제약 행동 등에 관해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수행하여 최종 1,101개의 유효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1996, 비교 범죄: 살인, 절도, 폭행, 주택강도, 자동차 절도, (집 밖에서의) 강도, 사기, (사적 재산에 대한 파괴, 구걸). 연구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 성폭력은 가장 불쾌한 것으로 작용하며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범죄를 피해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피해에 대한 공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Gordon과 Riger(1989)는 시카고,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세 도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그들은 그 심각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여성 두려움”이라고 일컫고 있다. 또한 그들은 여성에게 있어 강간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필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연구에서 최인섭, 김성원(1998)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피해불안은 여러 종류의 사회구조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먼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영역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르는 불안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대에서 불안수준이 가장 높고 50대에서 불안수준이 가장 낮으며 30대가 20대보다 불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가운데 미성년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성피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 상황통제적 요인도 성폭력의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특성, 주택형태를 상황통제 요인으로 상정하였을 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이 두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고, 대체로 경비체계가 허술한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와 통제가 결여된 상황 제차는 범죄 피해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1>과 <표2>는 성피해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사회구조학적 요인과 상황통제적 요인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변 수	범 주	사 례 수	평 균	F 값
연 령	10대	172	16.62	19.61****
	20대	450	15.86	
	30대	400	16.37	
	40대	287	15.54	
	50대	182	13.65	
교육수준	중학 이하	195	14.05	16.18****
	고등학교	823	16.06	
	대학 이상	182	16.15	
혼인상태	미혼	555	15.99	1.80
	기혼	936	15.61	
혼인기간	10년 미만	330	16.09	25.99****
	20년 미만	261	16.55	
	20년 이상	262	14.39	
직 업	정신노동 종사 자	304	15.87	3.07*
	육체노동 종사 자	257	15.30	
	학생	305	16.24	
	주부	620	15.65	
소득수준	하	560	15.25	14.77****
	중	437	16.55	
	상	494	15.61	
19세 이하 가구원수	없다	463	14.68	29.36****
	1명	373	15.76	
	2명	569	16.78	
	3명 이상	86	14.67	

20세-64세 가구원수	1명	81	14.91	22.06****
	2명	832	16.37	
	3명	266	15.68	
	4명 이상	312	14.40	
65세 이상 가구원수	없다	1,439	15.77	0.38
	있다	142	15.56	

* p < .05, **** p < .00001

<표 2> 상황통제요인과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변수	범주	사례수	평균	통계치
거주지역	주거지역	1,159	15.85	t=1.89
	비주거지역	332	15.41	
주거형태	단독주택	472	15.21	F=8.26*** *
	연립주택	352	16.05	
	저층아파트	161	16.84	
	고층아파트	479	15.70	

**** p < .00001

2) 성피해 불안의 개념

성피해 불안의 개념은 원인적 측면과 진단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원인적 측면을 살펴보면,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들은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논의들로부터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과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피해경험적 접근(victimization

perspectives)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에 주목하는 관점이고, 반면 후자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가에 주목한다. 사회 통제적 접근(social control perspectives) 등이 여기에 속한다. 피해경험적 접근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범죄피해의 경험이나 범죄율의 결과로 본다(Lewis, 1980; Feyerherm & Hindelang, 1974; Kleinman & David, 1973; 최인섭, 김성언, 1998, 재인용).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개인적 특성, 특히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상정한다. 반면 상황적 요인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감독이 부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다고 본다. 특히 사회통제적 접근은 한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두려움이 야기된다고 설명한다(Greenberg et al., 1985; Lewis & Salem, 1981). 사회통제적 접근에서는 한 지역사회를 분석단위로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최인섭, 김성언(1998)의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모두 성피해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국면에 따른 문항구성을 통해 여성의 성피해불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진단적으로 성피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성피해불안은 특정공포증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이 예견될 때 두려움이 유발되는 현상으로 공포 자극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불안 반응이 유발되며, 이런 반응은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공포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아주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지닌 채 견디어 낸다. 회피, 예기불안, 또는 두려움 상황에서의 고통이 개인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직업적(또는 학업적)기능,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들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또는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심한 고통이 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피해불안을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제약 행동의 개념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그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제약 행동이다. 여기서 제약 행동은 두려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원치 않던 변화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성폭력을 포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일상생활을 바꾼다고 해도 그러한 제약 행동 자체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상승한다(Liska, Sanchirico & Reed, 1988).

예 1) 직장 가는 길 중간에 불량배들이 모일 것 같은 장소가 있어서 매일 우회로를 택하게 된다.

예 2)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닌다.

범죄나 성희롱에 대한 불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행동과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불편감을 상승시킨다(Deegan, 1987; Day, 1997; Gordon & Riger, 1989). 본 연구에서는 성피해 불안으로 인한 제약행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4) 대처행동의 개념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즉 스트레스가 인간에 의해 지각되는 수준은 환경으로부터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정도에 따라 한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사용되는 대처방식은 그의 생존을 돕고 번창시킬 수도 있으나 때론 방해가 될 수도 있다(이미선, 2002).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괴로움으로 해결방안을 찾게 되는데 이런 괴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스트레스 대처라 한다. 스트레스 대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는 그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를 문제 중심형 대처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를 정서적 대처법이라 한다(Lazarus & Folkman, 1984). 대부분의 여성은 두려움에 민감하며 그로인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련의 대처방안을 갖고 있으며 (Gordon & Riger, 1989; Rozee & Koss, 2001; Stanko, 1996),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불안은 감소됨을 경험한다. (Ozer & Bandura, 1990)

Hollander(2004)에 의하면,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그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공격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 그는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비해 그에 맞는 대처 기술들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self-defense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협 가능성이 내재된 상황에서의 자신감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낯선 이들/ 아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편안해졌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느낌과, 자신감 향상, 여성, 남성,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성폭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피해를 당한 경험이 전무한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Ozer & Bandura, 1990).

Ullman (1997)은 강력한 신체적 저항(예: 싸우는 것)이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신체적 저항(예: 도망가거나 애써 움직이는 등), 그리고 강력한 언어적 저항(예: 소리지르거나 위협하는 등)이 강간을 피하는 것에 일관된 관련성을 보임을 보고했으며, 또한 Usin(1980)은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대처의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것으로 좌절이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적극적 대처방식이라 하며, 대처의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소극적 대처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적극적 그리고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에 관한 문항을 추가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focus group 조사에서 20-30대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하였고, 예비 설문(부록 1)에서 고교생 47명 대학생 및 20대 여성 52명 30대 여성 16으로 총 115명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설문에서 고교생 174명 20대 여성 118명 30대 여성 33명으로 총 336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0.05세 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질문지는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 제약행동척도, 대처행동척도 48문항, Beck의 우울척도(Beck's Anxiety Index: BAI) 21문항으로,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부록 2)는 개인이 어느 정도 성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48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성피해에 대한 불안,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나누어진 3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2) Beck의 불안척도(BAI : Beck's Anxiety Index)

이 척도는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부록 3).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0에서 63점 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권석만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2 였다

3. 조사절차

1) focus group 조사

척도개발을 위한 양적조사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사전조사를 위해 focus group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0-30대 대학원생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성피해 경험, 일반적으로 여성이 갖게 되는 성피해에 대한 불안수준,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 성피해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가능 여부 및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성피해 경험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성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피해로 인한 불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성피해로 인해 불안을 크게 겪고 있다는 의견, 불안을 다소 겪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불안을 거의 겪고 있지 않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피해로 인한 불안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에 대해서는 집에 귀가할 때 전화를 걸면서 간다던지, 집에 다른 식구가 있을 때에만, 택배나 애프터서비스(A/S) 등을 받을 수 있는 것, 숙박을 해야 하는 여행은 못 가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처행동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소극적 대처를 보이는 일이 많은 편으로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정도의 대처방식을 주로 보고

하였으며 바늘 같은 것이 있다면 찌른다든지 성추행범에게 단호한 의사 표현을 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2) 예비설문조사

최종문항선정을 하기 이전에 여성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성피해 불안의 문항 구성과 문항 확정, 신뢰도와 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기초 문항 구성을 위한 문항내용수집을 위해 1차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문항을 확정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지역의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 여성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 4월부터 시작하여 4주의 기간 동안 1개 고등학교, 2개 대학, 1개 사회복지관 등에서 총 115명의 여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설문에서는 여성들이 성피해 불안을 느끼는 상황 및 대상, 불안으로 인한 제약행동, 그리고 성피해를 당하는 상황 하에서 가능한 대처행동에 대해 주관식 서술방법을 통해 다중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115명의 대상이 답변한 내용은 총 905개였으며 그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자 297개의 답변내용이 정리되었고(부록 1), 이를 토대로 최종설문에 사용될 문항을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들과의 상의 하에 결정하였다.

3) 최종설문조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제약행동, 대처행동에 대한 척도와 BAI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전해주고 회수하는 방식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전해주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 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2007년 4월 말 부터 약 6주간 2개 고등학교, 3개 대학, 2개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

포한 370부의 설문 중 총 336부의 설문자료가 수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결측값이 있는 17개 자료를 제외한 319개 자료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 과정은 SPSSWIN 1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1차 설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에 대해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각 요인별로 문항을 구성하고 문항을 삭제, 추가하여 49 문항을 결정하였다. 최종 구성된 문항에 대한 2차 설문조사 후 문항분석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 및 제약행동 척도,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하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 및 제약행동 척도,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설문자료를 문항분석하였다.

셋째,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 BAI와 개발한 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문항 및 하위요인 결정

내용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1차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서 여성들이 성피해 불안을 느끼는 상황 및 대상, 불안으로 인한 제약행동, 그리고 성피해를 당하는 상황 하에서 가능한 대처행동이 조사되었다. 115명의 대상에게서 구한 답변내용은 총 905개였으며 그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297개의 답변내용이 취합되었다(부록 1). 이를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후 적합한 내용으로 문항을 도출한 후 여러차례 수정을 거듭한 결과 4점 Likert척도의 총 49문항(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32문항,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17문항)이 선정되었다. 문항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도교수와 본 연구자의 상의 하에 1차 설문 답변 내용을 판별하여 성피해 불안을 느낄만한 상황이나 대상이 아니거나 제약행동 및 대처행동으로 적절치 못한 내용,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내용 등을 제거하고 유사한 답변을 단일화하였다. 제작된 문항의 하위요인의 설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도교수와 본 연구자의 상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에서는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불안 및 제약행동으로 이루어진 4개 요인으로,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에서는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나누어진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문항내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각 요인별 문항 내용

요인	문항내용
성추행 불안	1.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을 때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뒤에 남성이 가깝게 서 있을 때 3. 붐비는 장소에서 남성과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을 때 4. 골목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올 때 5. 도서관 같은 곳에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남자가 있을 때 6. 짧은 치마나 파인 옷을 입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갔을 때 7. 엘리베이터에 남성과 단둘이 함께 탈 때 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았을 때
성피해 불안 및 제약 행동	9. 한적한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 걸면서 아는 척 할 때 10. 밤에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 11. 혼자 집에 있는데, 택배나 애프터서비스(A/S)가 왔을 때 12. 성폭력에 관한 TV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았을 때 13. 학교 선후배나 아는 오빠와 단 둘이 있을 때 14. 지하 주차장에 혼자 들어갔을 때 15. 버스나 지하철이 끊어져 혼자 택시를 탈 때 16.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뒤에서 걸어올 때
성추행으 로 인한 제약행동	1. 출퇴근길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은 피하게 된다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가 등 뒤에 서 있으면

		<p>긴장하게 된다</p> <p>3.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계단을 이용한다</p> <p>4. 파인 옷이나 짧은 치마를 못 입는 등 옷차림에 신경이 쓰인다</p> <p>5. 골목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길을 돌아가야 한다</p> <p>6.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 먼저 앉아있는 남자의 인상을 살피고 앉는다</p> <p>7. 남녀공용 짐질방에는 가지 못 한다</p>
	<p>성폭력으로 인한 제약행동</p>	<p>8. 집에 다른 식구가 있을 때에만, 택배나 애프터서비스(A/S) 등을 받을 수 있다</p> <p>9. 택시를 탈 때 기사와 얼굴을 확인하고 타거나, 번호판을 기록해 놓는다</p> <p>10. 이성 친구랑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다</p> <p>11. 밤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돌아다니지 못한다</p> <p>12. 늦은 시간 귀가할 때 동행이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p> <p>13.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전화를 하면서 걸어간다</p> <p>14. 성폭력이 두려워서 남자들은 무조건 의심하게 된다</p> <p>15. 숙박을 해야 하는 여행은 못 간다</p> <p>16. 남자들의 친절을 신뢰하지 못 한다</p>
<p>대처 행동</p>	<p>성추행에 대한 대처행동</p>	<p>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고함을 지를 수 있다</p> <p>2. 성추행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야단을 칠 수 있다</p> <p>3.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는 사람의 뺨을 때릴 수 있다</p> <p>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욕을 할</p>

	<p>수 있다</p> <p>5. 성기를 노출하는 남자를 만나면 똑바로 쳐다보며 야단을 칠 수 있다</p> <p>6. 바늘 같은 것이 있다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찌를 수 있다</p> <p>7. 뒤에서 나를 껴안으려는 남자가 있다면 팔꿈치로 옆구리를 칠 수 있다</p> <p>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의 발을 세계 밟아버릴 수 있다</p>
<p>성폭력에 대한 대처행동</p>	<p>1. 골목길 같은 곳에서 나를 성폭행하려는 남자가 있을 때, 호루라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p> <p>2.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든 주위에 잡히는 물건으로 남자를 때릴 수 있다</p> <p>3. 위의 상황에서 여관이나 모텔 등 편안한 곳에 가서 즐기라고 하는 등 남자를 속여서 도망칠 수 있다</p> <p>4. “나는 선천성 희귀병 환자다 조금만 무리하면 죽는다” 등의 연극을 해서 상황을 피할 수 있다</p> <p>5. “우리 삼촌이 국정원 차장으로 계신다”는 등의 말을 지어내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p> <p>6.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남자의 성기를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p> <p>7. 남자의 손이나 팔 또는 귀를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p> <p>8. 남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후 도망갈 수 있다</p> <p>9.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도망갈 수 있다</p>

타당성은 하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변수들 중 신뢰롭고 해석 가능한 잠재적 요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관련 방법 중 정보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요인의 수를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고자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점검하기 위해 우선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수치를 알아보았다. KMO수치는 1에 가까울 수록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함을 나타낸다. <표 7>을 보면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대처행동 척도의 KMO수치가 각각 .892,과 .897로 1에 근접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KMO와 Bartlett의 검정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척도	.892	.897
Bartlett's 의 구형성 검정	Approx. Chi-Square df Sig.	2582.373 136 .000
	3945.052 496 .000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인 1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수가 7개로 나타났으나 (그림 1), 추출된 7개 요인의 각각의 속성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못하였고, 최초 예상한 4개 요인 역시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림1의 Scree 도표를 보면, 기울기를 고려할 때 2개 요인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차 요인분석에서는 연구자가 고유치의 하락 정도와 문항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였으며 제시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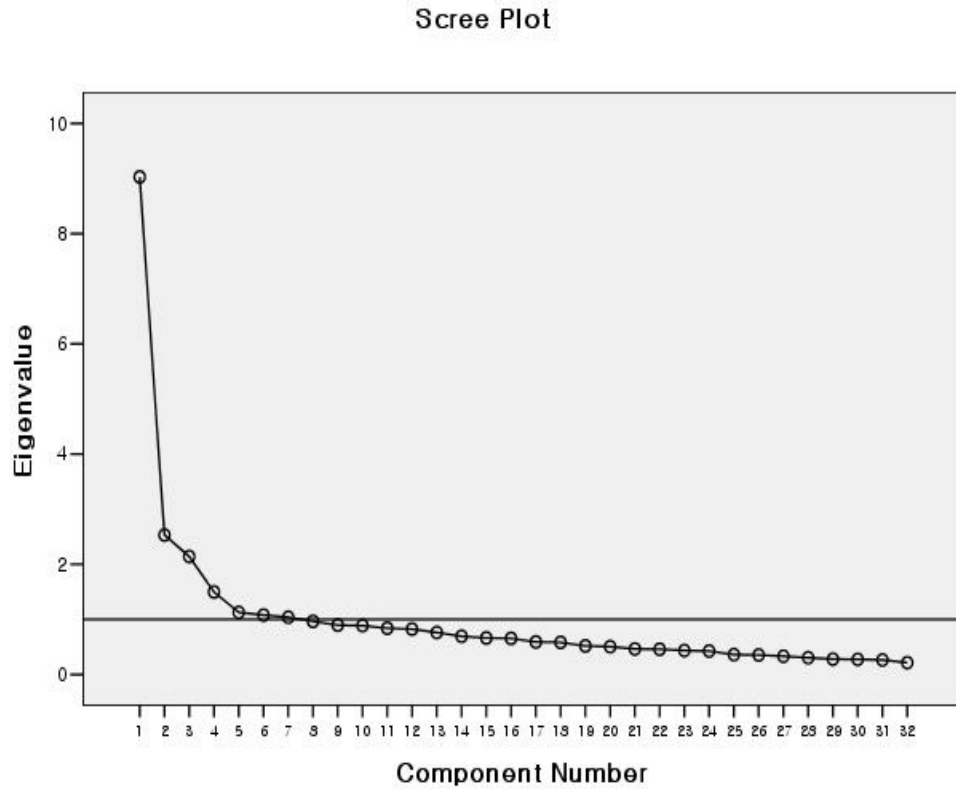


표 5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문항2, 문항13, 문항21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적절히 각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요인1은 ‘성피해 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성피해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요인2는 ‘성피해 제약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성피해로 인한 행동상의 제약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이들의 설명 변량의 총합은 36.130%이다

<표 5>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요인별 부하량 (N=319)

문항 내용	Component	
	요인1 성피해 불안	요인2 성피해 제약행동
문항 8-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뒤에서 걸어올 때	.756	.042
문항 4- 골목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올 때	.710	-.070
문항 10- 밤에 어두운 길을 혼자 걸을 때	.684	.183
문항 7- 엘리베이터에 남성과 단둘이 함께 탈 때	.644	.213
문항 6- 지하 주차장에 혼자 들어갔을 때	.638	.139
문항 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았을 때	.615	.186
문항 9- 한적한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 걸면서 아는 척할 때	.608	.132
문항 15- 버스나 지하철이 끊어져 혼자 택시를 탈 때	.563	.279
문항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뒤에 남성이 가깝게 서 있을 때	.553	.199
문항 11- 혼자 집에 있는데, 택배나 에프터서비스(A/S)가 왔을 때	.515	.339
문항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가 등 뒤에 서 있으면 긴장하게 된다	.484	.352
문항 3- 붐비는 장소에서 남성과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을 때	.460	.232
문항 12- 성폭력에 관한 TV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았을 때	.450	.180
문항 6- 짧은 치마나 파인 옷을 입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갔을 때	.449	.290
문항 5- 도서관 같은 곳에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남자가 있을 때	.442	.202
문항 1-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을 때	.392	.252
문항 21- 골목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길을 돌아가야 한다	.391	.091
문항 32- 남자들의 친절을 신뢰하지 못 한다	.094	.684
문항 27- 밤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돌아다니지 못한다	.168	.677
문항 30- 성폭력이 두려워서 남자들은 무조건 의심하게 된다	.263	.672
문항 31- 숙박을 해야 하는 여행은 못 간다	.097	.643
문항 26- 이성 친구랑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다	.053	.639

문항 24- 집에 다른 식구가 있을 때에만, 택배나 애프터서비스(A/S) 등을 받을 수 있다	.123	.603
문항 23- 남녀공용 화장실에는 가지 못 한다.	.071	.566
문항 28- 늦은 시간 귀가할 때 동행이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266	.564
문항 19-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계단을 이용한다	.296	.528
문항 20- 파인 옷이나 짧은 치마를 못 입는 등 옷차림에 신경이 쓰인다	.264	.503
문항 25- 택시를 탈 때 기사의 얼굴을 확인하고 타거나, 번호판을 기록해 놓는다	.116	.464
문항 22-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 먼저 앉아있는 남자의 인상을 살피고 앉는다	.305	.452
문항 17- 출퇴근길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은 피하게 된다	.218	.447
문항 13- 학교 선배나 아는 오빠와 단 둘이 있을 때	.331	.413
문항 29-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전화를 하면서 걸어간다	.302	.411

2) 성취해 대처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성취해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인 1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수가 4개로 나타났으나(그림 2), 역시 추출된 4개 요인의 각각의 속성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림2의 Scree 도표를 보면, 기울기를 고려할 때 2개 요인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차 요인분석에서는 연구자가 고유치의 하락 정도와 문항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였으며 제시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성폭행 대처행동 척도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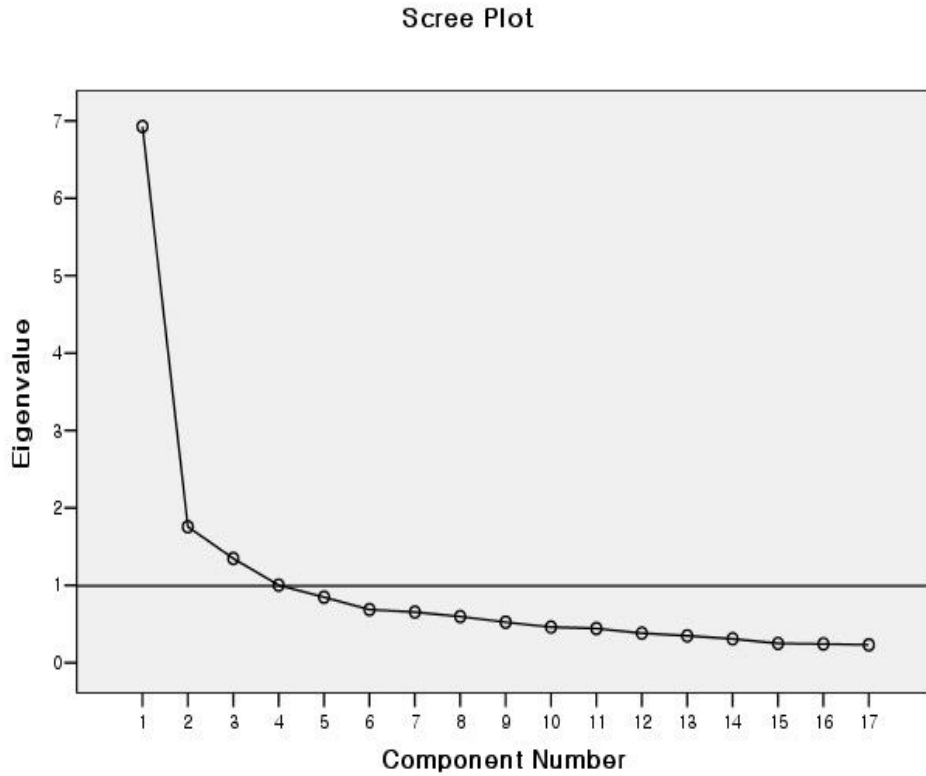


표 6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문항9,, 문항10 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적절히 각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요인1은 ‘성추행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성추행에 대한 가능한 대처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요인2는 ‘성폭력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성폭력에 대한 가능한 대처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이들의 설명 변량의 총합은 51.077%이다.

<표 6> 성폭행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별 부하량 (N=319)

	Component	
	요인1 성추행 대처행동	요인2 성폭력 대처행동
문항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고함을 지를 수 있다	.792	.052
문항 3-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는 사람의 뺨을 때릴 수 있다	.776	.255
문항 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다	.776	.253
문항 2- 성추행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야단을 칠 수 있다	.768	.179
문항 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의 발을 세게 밟아버릴 수 있다	.735	.196
문항 7- 뒤에서 나를 껴안으려는 남자가 있다면 팔꿈치로 옆구리를 칠 수 있다	.656	.241
문항 10-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든 주위에 잡히는 물건으로 남자를 때릴 수 있다	.579	.220
문항 5- 성기를 노출하는 남자를 만나면 똑바로 쳐다보며 야단을 칠 수 있다	.573	.459
문항 6- 바늘 같은 것이 있다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찌를 수 있다	.526	.319
문항 9- 골목길 같은 곳에서 나를 성폭행하려는 남자가 있을 때, 호루라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518	.286
문항 16- 남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후 도망갈 수 있다	.194	.745
문항 15- 남자의 손이나 팔 또는 귀를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	.175	.723
문항 13- “우리 삼촌이 국정원 차장으로 계신다”는 등의 말을 지어내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220	.720
문항 12- “나는 선천성 희귀병 환자다 조금만 무리하면 죽는다” 등의 연극을 해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221	.696
문항 17-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도망갈 수 있다	.256	.696
문항 11- 위의 상황에서 여관이나 모텔 등 편안한 곳에 가서 즐기라고 하는 등 남자를 속여서 도망칠 수 있다	.233	.582
문항 14-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남자의 성기를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	.110	.423

2. 신뢰도결과 및 타당도 검증

1)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선정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32문항과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17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척도의 21번 문항: 골목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길을 돌아가야 한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문항을 확정된 각 하위 요인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각 하위 요인별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Mean	Std. Deviation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	성피해 불안	문항1	2.31	.881
		문항2	2.89	.813
		문항3	2.70	.796
		문항4	3.37	.781
		문항5	2.11	.775
		문항6	2.44	.839
		문항7	2.66	.948
		문항8	2.45	.960
		문항9	2.82	.891
		문항10	3.04	.931
		문항11	2.17	.839
		문항12	2.52	.832
		문항13	1.91	.785
		문항14	2.51	.923
		문항15	2.73	.923
		문항16	3.40	.764
	제약행동	문항17	1.68	.763
		문항18	2.42	.879
		문항19	1.89	.878
		문항20	2.32	.868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		문항21	2.11	.920	
		문항22	1.34	.649	
		문항23	1.69	.861	
		문항24	2.02	.903	
		문항25	1.59	.693	
		문항26	1.82	.820	
		문항27	1.94	.906	
		문항28	2.37	1.003	
		문항29	1.73	.793	
		문항30	1.63	.845	
		문항31	1.83	.808	
	성추행에 대한 대처행동	문항32	2.86	.856	
		문항33	2.37	.927	
		문항34	2.39	1.009	
		문항35	2.72	.963	
		문항36	1.89	.842	
		문항37	2.84	.935	
		문항38	3.07	.810	
		문항39	3.10	.837	
		문항40	3.28	.799	
		성폭력에 대한 대처행동	문항41	3.22	.812
			문항42	2.85	.877
			문항43	2.55	.889
			문항44	2.43	.891
			문항45	1.50	.775
			문항46	2.76	.919
			문항47	2.56	.928
			문항48	2.74	.951

2) 내적 합치도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로 실시한 2차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값)는 .915이었으며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외한 내적 합치도는 .91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요

인별로 내적 합치도를 조사했을 때, 피해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881이었다.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 요인은 문항을 제거했을 때 α 값이 상승하는 1개 문항을 제거하기 전 .861의 α 값을 보였으나 제거한 후 .866으로 상승하였다. 모든 요인에서 .800이상의 α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6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7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측정영역이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각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의 내적 합치도

요인	문항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성피해 불안	문항1	0.410	0.915
	문항2	0.502	0.913
	문항3	0.455	0.914
	문항4	0.433	0.914
	문항5	0.420	0.914
	문항6	0.482	0.914
	문항7	0.566	0.912
	문항8	0.534	0.913
	문항9	0.490	0.913
	문항10	0.581	0.912
	문항11	0.566	0.912
	문항12	0.412	0.915
	문항13	0.475	0.914
	문항14	0.519	0.913
	문항15	0.558	0.912
	제약행동	문항16	0.542
문항17		0.421	0.914
문항18		0.549	0.913

문항19	0.530	0.913
문항20	0.488	0.914
문항21	0.488	0.914
문항22	0.394	0.915
문항23	0.455	0.914
문항24	0.361	0.915
문항25	0.425	0.914
문항26	0.538	0.913
문항27	0.532	0.913
문항28	0.456	0.914
문항29	0.603	0.912
문항30	0.460	0.914
문항31	0.486	0.914

<표 9>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값
전체	.916
성피해 불안	.881
성피해 제약행동	.866

(2)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로 실시한 2차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값)는 .907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내적 합치도를 조사했을 때, 성추행에 대한 대처 요인은 .880이었으며, 성폭행에 대한 대처 요인은 .842의 α 값을 보였다,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800 이상의 알파계수를 보여 측정영역이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각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의 내적 합치도

요인	문항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성피해 불안	문항1	0.410	0.915
	문항2	0.502	0.913
	문항3	0.455	0.914
	문항4	0.433	0.914
	문항5	0.420	0.914
	문항6	0.482	0.914
	문항7	0.566	0.912
	문항8	0.534	0.913
제약행동	문항9	0.490	0.913
	문항10	0.581	0.912
	문항11	0.566	0.912
	문항12	0.412	0.915
	문항13	0.475	0.914
	문항14	0.519	0.913
	문항15	0.558	0.912
	문항16	0.542	0.913
	문항17	0.421	0.914

<표 11>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값
전체	.907
성추행 대처행동	.880
성폭력 대처행동	.842

개발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확정된 31문항과 성피해 대처 행동척도의 17문항 및 BAI의 불안수준을 측정하는 21개 문항을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1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상관을 알아보았다. 개발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와 BAI간에는 .107의 무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BAI와 각 하위요인과의 상관은 -.077~.131의 정적,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표 12). 이중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성피해 제약행동 요인이 .131로 유일하며, $p < .05$ 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BAI와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그리고 성피해 대처행동 간에는 무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위 요인 역시 무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피해 불안척도 및 제약행동 척도와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는 일반적인 불안수준과 서로 독립적인 내용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2> BAI와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 (N=319)

Pearson Correlation	
	Beck's Anxiety Index: BAI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107
요인1. 성피해 불안	.074
요인2. 성피해 제약행동	.131(*)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077
요인1. 성추행 대처행동	-.066
요인2. 상폭력 대처행동	-.076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 척도의 경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척도와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성피해 불안 요인과 성추행 대처행동 요인이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성추행에 대해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성피해에 대한 불안, 성피해에 대한 제약행동은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성피해 불안이 높을수록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 역시 많아짐을 알 수 있고 구성개념의 관련성을 나타내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추행 대처행동 요인과 성폭력 대처행동요인 역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타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 각 변인별 상관계수 (N=319)

Pearson Correlation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요인 1 성피해 불안	요인 2 성피해 제약행동	성피해 대처행동	요인1 성추행 대처행동	요인2 성폭력 대처행동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1	.914**	.888**	-.115*	-.117*	-.088
요인1 성피해 불안	.914**	1	.634**	-.118*	-.119*	-.092
요인2 성피해 제약행동	.888**	.634(**)	1	-.102	-.101	-.082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	-.115**	-.118*	-.102	1	.891**	.917**
요인1 성추행 대처행동	-.117*	-.119	-.101	.891**	1	.636**
요인2 성폭력 대처행동	-.088	-.092	-.082	.917**	.636**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여성이 성피해 불안을 느낀 정도 및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개발 연구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공공장소나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성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성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피해 불안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척도개발 연구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여성의 성피해 불안 척도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성피해 불안 및 대처행동을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성피해를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불안, 제약행동을 요인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결과, 성희롱과 성폭력 영역의 구분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유치의 하락 정도와 문항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성피해 불안, 성피해 제약행동으로 이루어진 2개 요인이 설정되었다. 성피해 대처행동척도의 경우는 요인분석 결과 기존에 설정한 성추행 대처행동요인과 성폭력 대처행동요인의 2개 요인이 대체적으로 일치함이 나타났다. 본 척도는 성피해 불안의 경우 ‘전혀 안 느낌’에서 ‘많이 느낌’, 성피해 제약행동의 경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 성피해에 대한 대처행동의 경우 ‘전혀 할 수 없다’에서 ‘매우 잘 할 수 있다’에 이르는 4점 Likert척도에 반응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질문지는 우선 일반 여성이 성피해 불안을 느끼는 대상과 상황, 제약행동, 가능

한 대처행동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여 주관식 서술방법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지도교수와 상의 후 다른 정서나 행동과 혼동되는 내용, 매우 독특한 개인적 경험 등을 제거하여 간결한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대상연령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상적 수준의 언어적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아 주의를 기울여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질문지의 간결한 구성으로 이를 실시하는데 개인당 소요시간은 5-7분 정도로 매우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31문항과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17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는데, 하위요인인 성피해 불안요인과 제약행동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1과 .866이었으며, 성추행 대처행동요인과 성폭행 대처행동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0과 .842로 양호한 편이었다.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와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각각 .916과 .907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최종 선정된 문항내용이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성피해 대처행동에 대해 신뢰롭게 평가함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타당도에 있어서는 각 문항이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의 2개 하위요인과 성피해 대처행동척도의 2개의 하위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또한 하위 차원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일반 여성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구성타당도에 있어서 요인분석을 통해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의 하위 차원으로 묶여진 성피해 불안과 성피해 제약행동은 Liska, Sanchirico & Reed(1988)의 연구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성피해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인 성추행 대처요인과 성폭력 대처요인도 각 문항이 적절히 하위요인에 포

함되어 각 구성개념이 타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와 기존 BAI가 .107의 무의미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성피해 제약행동 요인이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아, 본 척도는 일반적인 불안수준과는 독립적인 내용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 역시 BAI와 -.077의 무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인 성추행 대처행동요인과 성폭력 대처행동요인 역시 각각 -.066, -.076의 무의미한 상관을 보여 일반적인 불안수준과 독립적인 내용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성피해 불안요인과 성피해 제약행동요인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성추행대처행동 요인과 성폭행 대처행동요인 역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어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척도와 성피해 대처행동척도는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즉,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성피해 불안요인이 성추행 대처행동요인만이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성피해 제약행동 및 성추행 대처행동, 성폭력 대처행동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님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여성의 성피해불안 및 제약행동과 성피해 대처행동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피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피해경험 이후의 후유증이나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에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대처행동에 대해 적절한 심리상담적 개입이나 대처행동훈련에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한 척도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임상 및 상담 현장에서 시사하는 실제적 측면의 의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성피해 대처행동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 척도는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계획 및 사전·사후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 및 여성단체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척도, 성피해 대처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점차적으로 남녀평등이 실현되어가는 현 세대에 비추어볼 때, 여성의 심리적 안정 및 성피해로 인한 실제적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로서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평가하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의 결과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까지 검증하여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이 척도는 비임상 집단,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성피해 불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집단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해당 표집의 절차상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임상집단을 표집,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보기 위해 사용된 타 척도가 BAI뿐이었다.

이는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성의 성피해 불안과 유사한 척도를 찾을 수는 없었던 점에서 시작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사한 불안질문지와 대처행동, 제약행동과 관련된 척도와 의 구성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문항의 난이도 측면에 있어서, 각 요인별로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쉬운 문항에 비해 어려운 문항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을 요인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하위요인의 설명 변량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요인의 설정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피해 대처행동에 대한 하위요인의 설정에 있어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최초 대처행동 역시 성피해 불안의 한 개념으로 판단하였으나, 연구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를 하나의 독립된 척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선행연구의 심도 있는 고찰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처행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성피해로 인한 제약행동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여성의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에 대한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로 2개 하위요인을 가진 31개 문항과 성피해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로 2개 하위요인을 가진 17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 입증 을 위해 다른 척도와 의 상관 을 살펴 보 았 고, 그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척도를 사용하기 앞서서 주요 제

한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경찰청(2000). 2000년 경찰백서

권석만(1997).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심리측정적인 특성. 미 발표 논문

권희경 · 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 8

권희경 · 박경(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 8

교육인적자원부(2000).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제7차 교육과정자료 26.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1).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김상원(1998). 우리나라의 성문제 실태와 그 예방을 위한 사회의 역할,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김선아(2003).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희(2006). 여성주의 집단미술치료가 성폭력 생존자의 자존감과 불안

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규(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임상심리학회

김준호 외(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제1장 제2조의 2.

민성길(1999).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이남숙(2002).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이동임(2007).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원숙(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서울. 강남대학교출판부

이주용(2004).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질적연구 : 성적 영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영(2006). 임상연구: 서울 북동지역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
학적 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채규만(1999)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여성상담센터.

채규만 · 정민철(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최숙희(2004).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중학생들의 의식조사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인섭, 김성언(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자료 1.

한국성폭력상담소(2006). 2006년 상담통계

한은옥 · 문인옥(2004) 성폭력 및 성 유해매체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보건협회

허복옥(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경험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지태(2003).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urtois, C (1988) Healing the incest wound: Adult survivors in

therapy. New York: Norton.

Day, Kristen (1997). Better safe than sorry? Consequences of sexual assault prevention for women in public space, *Perspectives on Social Problems*, 9, pp. 83 - 101.

Deegan, Mary Jo (1987) The female pedestrian: the dramaturgy of structural and experiential barriers in the street, *Man-Environment Systems*, 17(3 & 4) , pp. 79-86.

Finekelhor, W. N., & Brown, A.(1985).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y*. 55, 530-541

Gordon, M. T.,&Riger, S. (1989). *The female fear: The social cost of rap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Greenberg (1985). Informal citizen action and crime prevention at the neighborhood level. Washington, D. C.

Hollander, J. A.(2004) "I can take care of myself". *Violence Against Women*; 10: 205-235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98-1809

Jodi Lane, James W.Meeker (2003). women's and men's fear of gang

crimes: sexual and nonsexual assault as perceptually contemporaneous offenses. Vol. 20 No. 2, June 2003,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Kenneth F. Ferraro (1996).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ial Forces*, 75(2):667-690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Koss, M. P. Goodman, L.A. Brown, A, Fitzgerald, L, Keita, G. P. & Russo, N.F. (1994). No Safe haven: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t home, at work, and in the community. Washin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risten Day (2001) Constructing Masculinity and Women's Fear in Public Space in Irvine, California. *Gender, Place and Culture*, Vol. 8, No. 2, pp. 109-127

Lewis, D. and Salem, Greta(1981). Community Crime and Prevention : an analysis of a developing strategy. *Crime and Delinquency*, Vol. 27.

- Liska, Allen E., and Barbara D. Warner(1991). Functions of Crime: A Paradoxical Pro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1441-63.
- Liska, Allen E., Andrew Sanchirico, and Mark D. Reed(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Social Forces* 66:827-37.
- Morgan, B. L. (1996). Putting the feminism into feminism scales: Introduction of a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LFAIS). *Sex Roles*, 34, 359-390.
- Ozer, E. M., & Bandura, A. (1990). Mechanisms governing empowerment effects: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72-486.
- Ragins, B. R., & Scandura, T. A. (1996). Antecedents of work-related correlates of report sexual harassment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mpeting hyposys*. *Sex Roles*, 32, 429-455.
- Rozee, P. D., & Koss, M. P. (2001). Rape: Acentury of resista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295-311.
- Ryckman, R. M., Robbins, M. A., Thornton, B.,&Cantrell, P.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891-900.

Shapiro, B. L. (1997). Date rape: It's relationship to trauma symptoms and sexual self 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407-420

Stanko, E. A. (1996). Warnings to women: Police advice and women's safety in Britain. *Violence Against Women*, 2, 5-24.

Ullman, S. E. (1997). Review and critique of empirical studies of rape avoida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4, 177-204.

Weitlauf, J. C., Smith, R. E., & Cervone, D. (2000). Generalization effects of coping skill training: Influence of self-defense training on women's efficacy beliefs,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625-633.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xual Harrassment Anxiety Scale for Woman

Jung Hoon , Oh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ny women feel anxiety about sexual harrassment in every day life and some of them limit or change their daily activities because of the anx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measuring woman's anxiety of sexual harrassment.

To make preliminary items, researched about in which situation and subject they feel anxiety of sexual harrassment, what kinds of constrained behaviors they have because of the anxiety and what kinds of management they have. It is founded on 115 woman's answer who aged between 17 and 39. Based on the research, made 49 items about sexual harassment anxiety of woman.

In secondary research, we researched to 336 woman with the items

and Beck's Anxiety Inventory. In result, reliability of Sexual Harassment Fear Scale was .881 and correlation with Beck's Anxiety Inventory was .122.¹⁾

1)

부 록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대처행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2. 개발한 성피해 불안 척도
3. BAI(Beck's Anxiety Index)nnnn

1. 성피해 불안 및 제약행동, 대처행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 성피해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나 대상		
당신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만일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경우를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	집에 혼자 있을 때	2
2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을 때(배달, 택배, 종교, 광고 등등)	5
3	혼자 현관문을 열 때	1
4	혼자 있을 때	1
5	성에 대해 개방적 가치관을 가진 남자(친구, 동기, 선후배)와 단둘이 있을 때	1
6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으면	1
7	남자랑 둘이 있을 때	1
8	직장에서 남자와 단 둘이 있을 때	1
9	대학교에서 동기나 선배와 단둘이 있을 때	1
10	밀폐된 공간에 남자와 둘이 있을 때	9
11	엘리베이터에 남성과 단둘이 함께 탈 때	11
1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13	택시 혼자 탈 때	6
14	늦은 시간 택시 혼자 탈 때	3
15	좁은 곳에서 아저씨가 쳐다볼 때	1
16	지하 주차장	2
17	지하실	2
18	낯선 남자가 뒤에서 걸어올 때	16
19	모자를 꼭 눌러쓴 남자가 뒤에서 걸어올 때	1
20	뒤에서 아저씨나 이상한 사람이 따라올 때	1

21	밤, 낮 상관없이 으스스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6
22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갈 때)	25
23	밤길을 혼자 걸을 때	8
24	늦은 밤에 혼자 있을 때	1
25	골목길에 차가 세워져있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	2
26	골목길에 아저씨가 있을 때	1
27	약수터나 외진 산길을 갈 때	1
28	인적이 드문 코스로 운동 나갈 때	2
29	낯선 곳에 혼자 있을 경우	1
30	낯선 곳에 갈 때	1
31	밤늦은 시간	1
32	늦은 시간에 밖에 있는 경우	7
33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갈 때	13
34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10
35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할 때	4
36	늦은 시간의 지하보도	1
37	늦은 시간의 공공장소	1
38	늦은 시간의 지하철	1
39	공원	1
40	영화관 옆좌석	1
41	버스나 지하철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옆에 있을 때	2
42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때	14
43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4
44	좌석버스	1
45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때 옆이나 뒤에 남성이 서 있을 때	4
46	버스나 지하철에서 뒤에 남성이 있을 때	2
47	버스나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깝게 서 있을 때	3
48	만원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경우	1

49	지하철 안에서 의도적인 신체접촉	1
50	술취한 사람이 다가올 때	5
51	술취한 아저씨가 골목에 있을 때	1
52	술 취한 사람이 말을 걸 때	2
53	밤에 술취한 남자를 만날 때	1
54	술취한 사람이 쳐다볼 때	1
55	알바하다 술 취한 사람이 술 따르라고 할 때	1
56	무서운 아저씨가 말 걸면서 아는 척 할 때	1
57	모르는 남자가 친한 척 하거나 이것저것 물어볼 때	2
58	친한 사람과 술을 마셨을 경우	1
59	술자리에서 취했을 때	2
60	회사 술자리	1
61	사무실에 남성과 있을 때	1
62	짧은 치마나 파인 옷을 입고 밤에 집에 들어갈 때	1
63	짧은 치마를 입을 때	1
64	남자들 여럿이서 큰소리로 더들며 주위를 에워쌀 때	1
65	남자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 때	1
66	위아래로 훑어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	2
67	남자들이 흘깃흘깃 쳐다볼 때	2
68	낯선 아저씨가 계속 쳐다볼 때	1
69	이상한 사람이 쳐다볼 때	2
70	분위기와 대화가 성적인 것으로 흐를 때	1
71	40-50대 남자가 변태같은 웃음을 띄며 마주보며 걸어올때	1
72	여성비하발언을 들을 때	1
73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한 TV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본후	7
74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한 책을 본 후	1
75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1
76	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준다고 차를 세울 때	1
77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1

78	낯선 사람이 버스에서 자리가 있는데도 내 앞에 있을 때	1
79	동네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1
80	변태를 만났을 때	3
당신이(혹은 가까운 친구가) 두려워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1	음담패설(언어적 성희롱)	21
82	몸매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	1
83	직장에서 당하는 음담패설	3
84	직장에서 당하는 성희롱	4
85	고등학교 때 남자선생님이 엉덩이 때리는 거	1
86	어두운 곳이나 음침한 곳에서 당하는 성피해	2
87	지하철과 버스에서 당하는 성피해(성희롱)	9
88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	2
89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스킨쉽을 가장한 성희롱	2
90	과도한 스킨쉽	5
91	이쁘다며 만지는 행동	2
92	신체접촉	22
93	낯선 남성과의 모든 신체접촉	1
94	허벅지,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	8
95	노출증	2
96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낯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	1
97	성희롱	4
98	강간	21
99	성폭행	3
100	폭행	2
101	성폭력	3
102	성추행	2

103	집단 성폭력	1
104	데이트강간	1
105	인신매매나 납치	1
106	몰래카메라	1
107	훔쳐보기	3
108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	1
109	치마를 입었는데 다리를 계속 쳐보는 것	1
110	인터넷 상의 욕설	1
111	SM	1
112	커피심부름	1
113	탈영한 군인이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1
당신이(혹은 가까운 친구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14	친척오빠	4
115	친척아저씨	1
116	친오빠	1
117	양아버지	2
118	가까운 친지	3
119	먼 친척	1
120	주변의 아는 남자	3
121	아는 오빠	3
122	동네 오빠	1
123	동네 사람	2
124	학교선배	3
125	학교 동기	1
126	가까이 지내는 오빠	1

127	가까운 남자	1
128	친하지 않은 남자친구들	1
129	친한 이성친구	1
130	남자친구	2
131	직장선배	1
132	직장상사	10
133	직장동료	1
134	지나치게 잘해주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상사	1
135	과도한 스킨쉽을 하는 직장상사	1
136	알바 사장	2
137	학교 선생님	3
138	낯선 남자	19
139	모자를 꼭 눌러쓴 남자	2
140	같은 또래 남자들(20대)	1
141	같은 또래 남자들(10대)	1
142	어슬렁 거리는 사람	1
143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는 사람	1
144	뒤를 따라오는 사람	3
145	술취한 아저씨	10
146	술취한 사람	12
147	인상착의가 깔끔하지 않은 사람	1
148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나 덩치큰 남자	3
149	인상이 험악한 남자(폭력배)	4
150	조직폭력배	1
151	건달	1
152	양아치	1
153	불량학생들	1
154	도둑	1
155	성폭력 수배범(동네 발생시)	1

156	정신이상자	4
157	택시기사	2
158	택시기사를 가장한 사람	1
159	버스에서 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1
160	아저씨	14
161	40-50대 아저씨	11
162	30-40대 남성	2
163	나이 많은 아저씨	1
164	찜질방 아저씨들	1
165	동네 아저씨	3
166	수상한 아저씨	2
167	모르는 아저씨	1
168	변태 아저씨	2
169	변태같은 사람	3
170	노출한 아저씨	1
171	할아버지	3
172	70세 이상 노인	1
173	노숙자	6
174	10대 청소년	1
175	무리지어 있는 중고생	1
176	20대 청년	3
177	20대 후반의 남성	1
178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	3
179	훑어보는 아저씨	2
180	과도한 스킨쉽을 좋아하는 사람	1
181	야한농담(성적인 이야기)을 하는 사람	4
182	여성을 쉽게 보는 사람	1
183	특정 지을 수 없다	4
184	언론매체	1

	2.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당신이(혹은 가까운 친구가) 갖게 되는 생활의 제약이나 불편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85	택배나 as등을 집에다른 식구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2
186	낮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음 것을 기다리거나 계단을 이용한다	1
187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에 못 탄다	1
188	골목에서 40-50대 아저씨가 오면 피해간다	1
189	골목길을 다니지 못 한다	3
190	어두운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이지만 밝은 길이나 대로로 간다	6
191	큰 길로 다닌다	1
192	낮에도 인적이 드문 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	1
193	밖을 마음놓고 못다닌다	1
194	어두운 곳을 피한다	1
195	폐쇄적인 공간에 가지 못한다	1
196	낮선 남성이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할 때 움츠려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1
197	낮선 사람과 둘이 있을 때 (상대방 의도와 관계없이)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1
198	이성 친구랑 단둘이 있기 힘들다	1
199	모자를 꼭 눌러쓴 사람을 피하게 된다	1
200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은 피하게 된다	6
201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적은 쪽으로 칸을 옮긴다	1
202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변에 남자가 있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한다	1
203	버스나 지하철에서 낮선 남자가 주변에 있으면 경계하게 된다	1
204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음에 부담이 간다	2

205	밤에 지하철 타기 싫다	2
206	밤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돌아다니지 못한다	27
207	새벽에 밖에 나가기 힘들다	2
208	밤에 다닐 때 맘이 불편하다	1
209	밤에 필요한 것을 사라 가까운 곳조차 못간다	1
210	밤늦게 다닐 때는 주변을 많이 경계하게 된다	1
211	밤늦게 못 논다	2
212	밤늦은 귀가가 힘들다	11
213	늦은 시간 귀가할 때 동행이 있어야 한다	1
214	귀가시 아버지나 남자형제가 마중을 나와야 한다	1
215	귀가시 집까지 뛰어간다	2
216	밤에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1
217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면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된다	1
218	외박 불가 및 통금이 생긴다	1
219	야간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못한다	2
220	외출이 두렵다	1
221	혼자다니기 무섭다	7
222	외진 곳을 피한다	3
223	밤에 혼자다니기 싫다	2
224	점질방 혼자가기 무섭다	1
225	자취하는데 혼자 있기 무섭다	1
226	남성에 대한 불신	4
227	남자들은 무조건 의심한다	2
228	남성에 대한 불안	4
229	낯선 남성을 만날 때 혼자 있지 못한다	1
230	술취한 사람을 피하게 된다	2
231	옷차림에 신경쓰인다	9
232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못한다	5
233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없다	2

234	밤에 치마를 못입는다	1
235	밤에 야한옷(짧은 치마나 민소매 등)을 못입는다	2
236	대인기피증	3
237	가까운 사람을 자주 만나야만 할 때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진다	1
238	자녀의 움직임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1
239	사람들의 시선을 기피한다	1
240	변태 만나면 길을 돌아간다	1
241	여행을 못간다	1
242	활동범위가 제한된다	1
243	집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1
244	혼자 돌아다니기가 두렵다	2
245	심리적 불안감	4
246	우울증이 생긴다	1
247	타인의 친절을 신뢰못한다	2
248	피해의식이 생긴다	3
249	결혼할 때	1
250	부부관계 기피	1
251	소리안나게 걷는다	1
3. 당신이(혹은 가까운 친구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52	소리 지른다	24
253	도움을 청한다	4
254	도망간다	11
255	호루라기를 사용한다	7
256	사진을 찍는다	1
257	주위에 잡히는 물건으로 때린다	1
258	바늘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	1
259	호신무기(가스총, 전기충격기)를 소지한다	18

260	치한퇴치용 스프레이	1
261	호신술을 배운다	27
262	급소공격	3
263	남자의 급소를 찬다	1
264	매린다	4
265	발로 찬다	3
266	핸드폰의 SO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다(자신의 위치를 가족, 친구에게 알린다)	1
267	비상시 연락방법을 강구	1
268	핸드폰을 잘 소지한다	2
269	전화를 한다	6
270	통화하면서 길을 간다	1
271	가까운 사람을 호출한다	2
272	일찍 귀가한다	9
273	밤길을 혼자 다니지 않는다	3
274	큰길로 다닌다	1
275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잘 가지 않는다	2
276	조심하며 성피해상황을 미리 피한다	7
277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	1
278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면 없는 척 한다	1
279	1:1 관계를 피한다	1
280	성피해상황을 피해 뛰어간다	1
281	태연한척 이야기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언어적 성희롱)	1
282	얼른 피해버린다	1
283	설득한다	1
284	단호한 의사표현을 한다	4
285	성희롱이라고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대처한다	1

286	성희롱에 대해 화를 내거나 기분나빠한다	1
287	경찰에 신고한다	7
288	여성상담소에 의뢰한다	3
289	정신과치료를 받는다	1
290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하소연한다	2
291	믿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의뢰한다	1
292	조용히 침묵하고 당할 것 같다	1
293	특별한 방법이 없다	4
294	생각나는 것이 없다	1
295	담력을 키운다	1
296	대처교육을 받는다	1
297	남자친구를 만든다	1

2. 개발한 성피해 불안 척도

1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1) 당신은 아래의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1 전혀 안 느낌 2 별로 안 느낌 3 조금 느낌 4 많이 느낌)

1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을 때	1	2	3	4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뒤에 남성이 가깝게 서 있을 때	1	2	3	4
3	붐비는 장소에서 남성과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을 때	1	2	3	4
4	골목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올 때	1	2	3	4
5	도서관 같은 곳에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남자가 있을 때	1	2	3	4
6	짧은 치마나 파인 옷을 입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갔을 때	1	2	3	4
7	엘리베이터에 남성과 단둘이 함께 탈 때	1	2	3	4
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았을 때	1	2	3	4

2) 당신은 아래의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1 전혀 안 느낌 2 별로 안 느낌 3 조금 느낌 4 많이 느낌)

1	한적한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 걸면서 아는 척할 때	1	2	3	4
2	밤에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	1	2	3	4
3	혼자 집에 있는데, 택배나 애프터서비스(A/S)가 왔을 때	1	2	3	4
4	성폭력에 관한 TV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았을 때	1	2	3	4
5	학교 선후배나 아는 오빠와 단 둘이 있을 때	1	2	3	4
6	지하 주차장에 혼자 들어갔을 때	1	2	3	4
7	버스나 지하철이 끊어져 혼자 택시를 탈 때	1	2	3	4
8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뒤에서 걸어올 때	1	2	3	4

2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 인한 제약과 불편함

1) 다음 상황에서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당신이 겪게 되는 일상생활의 제약이나 불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아니다, 2 별로 아니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	출퇴근길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은 피하게 된다	1	2	3	4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가 등 뒤에 서 있으면 긴장하게 된다	1	2	3	4
3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계단을 이용한다	1	2	3	4
4	파인 옷이나 짧은 치마를 못 입는 등 옷차림에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골목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길을 돌아가야 한다	1	2	3	4
6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 먼저 앉아있는 남자의 인상을 살피고 앉는다	1	2	3	4
7	남녀공용 찜질방에는 가지 못 한다	1	2	3	4

2) 다음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당신이 겪게 되는 일상생활의 제약이나 불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아니다, 2 별로 아니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	집에 다른 식구가 있을 때에만, 택배나 애프터서비스 (A/S) 등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2	택시를 탈 때 기사의 얼굴을 확인하고 타거나, 번호판을 기록해 놓는다	1	2	3	4
3	이성 친구랑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다	1	2	3	4
4	밤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돌아다니지 못한다	1	2	3	4
5	늦은 시간 귀가할 때 동행이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1	2	3	4
6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전화를 하면서 걸어간다	1	2	3	4
7	성폭력이 두려워서 남자들은 무조건 의심하게 된다	1	2	3	4
8	숙박을 해야 하는 여행은 못 간다	1	2	3	4
9	남자들의 친절을 신뢰하지 못 한다	1	2	3	4

3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1) 당신이 만약 아래의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1 전혀 할 수 없다 2 못하는 편이다 3 할 수 있다 4 매우 잘 할 수 있다)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고함을 지를 수 있다	1	2	3	4
2	성추행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야단을 칠 수 있다	1	2	3	4
3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는 사람의 뺨을 때릴 수 있다	1	2	3	4
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다	1	2	3	4
5	성기를 노출하는 남자를 만나면 똑바로 쳐다보며 야단을 칠 수 있다	1	2	3	4
6	바늘 같은 것이 있다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찌를 수 있다	1	2	3	4
7	뒤에서 나를 껴안으려는 남자가 있다면 팔꿈치로 옆구리를 칠 수 있다	1	2	3	4
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의 발을 세계 밟아버릴 수 있다	1	2	3	4

2) 당신이 만약 아래의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1 전혀 할 수 없다 2 못하는 편이다 3 할 수 있다 4 매우 잘 할 수 있다)

1	골목길 같은 곳에서 나를 성폭행하려는 남자가 있을 때, 호루라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2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든 주위에 잡히는 물건으로 남자를 때릴 수 있다	1	2	3	4
3	위의 상황에서 여관이나 모텔 등 편안한 곳에 가서 즐기라고 하는 등 남자를 속여서 도망칠 수 있다	1	2	3	4
4	“나는 선천성 희귀병 환자다 조금만 무리하면 죽는다” 등의 연극을 해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1	2	3	4
5	“우리 삼촌이 국정원 차장으로 계신다”는 등의 말을 지어내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1	2	3	4
6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남자의 성기를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	1	2	3	4
7	남자의 손이나 팔 또는 귀를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	1	2	3	4
8	남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후 도망갈 수 있다	1	2	3	4
9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도망갈 수 있다	1	2	3	4

3. BAI(Beck's Anxiety Index)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1	2	3	4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1	2	3	4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1	2	3	4
4	편안하게 쉴 수 없다	1	2	3	4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1	2	3	4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1	2	3	4
8	침착하지 못하다	1	2	3	4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1	2	3	4
10	신경이 과민 되어 있다	1	2	3	4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1	2	3	4
12	자주 손이 떨린다	1	2	3	4
13	안절부절 못해 한다	1	2	3	4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1	2	3	4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1	2	3	4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1	2	3	4
19	가끔씩 기절 할 것 같다	1	2	3	4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1	2	3	4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1	2	3	4